



## ■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번역 작품들

우 석 균

2010년 노벨문학상의 영광은 페루 소설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Mario Vargas Llosa, 1936년생)에게 돌아갔다. 바르가스 요사는 일찌감치 20세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하는데다가 다작의 작가이다. 또한 작가의 관점이나 문학박사로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쓴 책들도 다수이며, 나아가 지식인으로 사회비판적인 책도 여러 권 썼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어느 책을 읽어야 할지 당혹스러울 때가 많다. 이는 국내 독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이다. 바르가스 요사는 라틴아메리카 작가 중에서 꽤 많은 작품이 번역되는 행운을 누린 작가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에 번역된 그의 저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소설

1986 『녹색의 집』(La casa verde, 1965), 지학사, 장선영 옮김(1994년 벽호에서 재출간).

1989 『판탈레온과 위안부들』(Pantaleón y las visitadoras, 1973), 중

- 양일보사, 민용태 옮김.
- 1990 『미라플로레스에서 생긴 일』(La tía Julia y el escritor, 1977), 사민서각, 황보석 옮김.
- 1991 『누가 빨로미노를 죽였나』(¿Quién mató a Palomino moleno?, 1986), 미학사, 전기순 옮김.
- 1994 『궁둥이』(Elogio de la madrastra, 1988), 열린세상, 정창 옮김.
- 2002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La tía Julia y el escritor, 1977), 문학동네, 황보석 옮김. (2009년 개정판 나옴)
- 2003 『세상 종말 전쟁』(La guerra del fin del mundo, 1981), 새물결, 김현철 옮김. (2010년 개정판 나옴).
- 2004 『리고베르토씨의 비밀노트』(Los cuadernos de don Rigoberto, 1997), 새물결, 김현철 옮김.
- 2009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Pantaleón y las visitadoras, 1973),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

문학동네, 송병선 옮김.

2010 『새엄마 찬양』(Elogio de la madrastra, 1988), 문학동네, 송병선 옮김.

2010 『천국은 다른 곳에』(El paraíso en la otra esquina, 2003), 새물결, 김현철 옮김.

2010 『염소의 축제』(La fiesta del Chivo, 2000), 문학동네, 송병선 옮김.

## 2) 문학론

1995 『픽션에 숨겨진 이야기』(Historia secreta de una novela, 1971), 문원출판, 정효석 옮김.

2005 『젊은 소설가에게 보내는 편지』(Cartas a un joven novelista, 1997), 새물결, 김현철 옮김.

## 3) 희곡

1998. 『따끄나의 아가씨』(La señorita de Tacna, 1981), 예니, 윤준식 옮김.

번역된 소설 중에서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는 책은 『녹색의 집』이다. 페루 북부의 사막도시 피우라와 페루 아마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녹색의 집’은 유곽을 뜻하는데, 아마존 출신으로 수녀원에서 교육을 받지만 결국 매춘부로 전락한 보니파시아가 피우라의 녹색의 집과 아마존을 잇는 연결고리이다. 보니파시아와 더불어 돈 안셀모, 푸시아, 아킬리노, 리투마, 흠 등 수많은 소외인물을 통해 페루의 사회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스케일이 큰 작품이라는 점, 시간과 공간이 수시로 교차하는 난해한 작품구조에도 불구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탄



탄하면서도 힘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사한다는 점 등에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1973년 발간된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는 바르가스 요사 작품에서 전환점이 된 작품이다. 훌리오 코르타사르, 카를로스 푸엔테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등과 함께 소위 말하는 ‘붐’ 작가 4인방에 속하는 바르가스 요사는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 탓인지 비교적 일찍 독자들에게 좀 더 친숙한 작품을 구상하게 되는데, 이를

처음 실행에 옮긴 장편소설이 바로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이다. 일종의 군 위안부 이야기를 통해 페루 군부의 타락을 꼬집은 이 작품에서 바르가스 요사는 성과 유머를 전면부에 부각시켰다. 1960년대의 세 장편소설 『도시와 개들』(La ciudad y los perros, 1963), 『녹색의 집』, 『카테드랄 주점의 대화』(Conversación en La Catedral, 1969)가 시종일관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을(심지어 성을 다루고 유머를 구사하는 순간에도) 고려하면 『판탈레온과 특별봉사대』는 너무나 급격한 변화였다. 이에 따라 통속적이라는 비판, 작품성이 퇴보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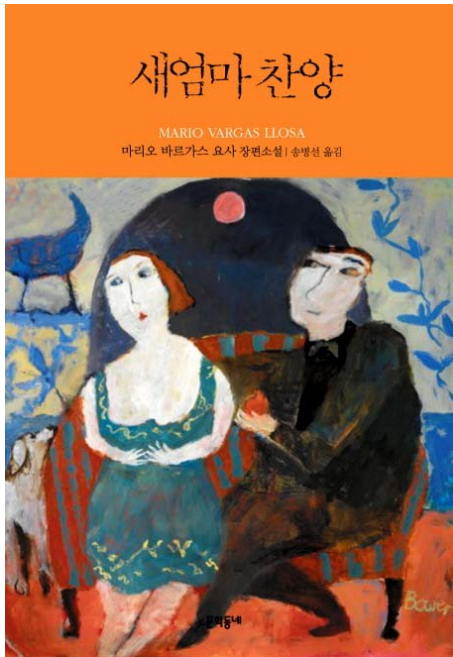
그러나 1977년 발간된 『나는 훌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는 바르가스 요사의 실험이 급작스럽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학에 대한 갈망과 성찰의 소산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소설은 두 가지 이야기가 뼈대를 이룬다. 홀수 장에서는 바르가스 요사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전개된다. 18세의



나이에 14살 연상의 먼 친척 아주머니와 비밀연애를 시작해 결혼에 이르게 된 이야기,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무려 일곱 가지 잡일을 하면서도 문학의 꿈을 불태우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짝수 장에서는 페드로 카마초라는 볼리비아인 라디오 극작가의 라디오 연속극들이 소개된다. 카마초는 황색 저널리즘을 연상시키는 통속적인 소재로 커다란 인기를 끌고, 그러면서 라디오극 여러 편을 동시에 집필하게 된다.

그러나 카마초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면서 이 라디오 극들의 줄거리가 서로 뒤얽혀 버린 상태로 방송을 탄다. 바르가스 요사는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를 통해 현실(‘비정상적인’ 결혼)과 라디오극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허구적인지를 묻고, 문학과 대중문화의 공통점과 차이를 성찰하게 만들고,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에 의혹의 시선을 던진다. 이런 점에서 바르가스 요사는 라틴아메리카 작가들 중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을 선취한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바르가스 요사의 취향도 한몫 작용했다. 바르가스 요사는 이 작품에 앞서 『영원한 난장(亂場): 플로베르와 『마담 보바리』』(La orgía perpetua: Flaubert y *Madam Bovary*, 1975)라는 문학론을 통해 『마담 보바리』를 멜로물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고 예찬한 바 있다. 그러면서 통속적인 라디오극이나 TV 드라마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솔직하게 밝히고, 나아가 마담 보바리가 통속극의 주인공 성격을 지닌 자신의 영원한 연인이라고 선언하기까지 한다. 『상상 결투. 조아노트 마르토렐』(El comb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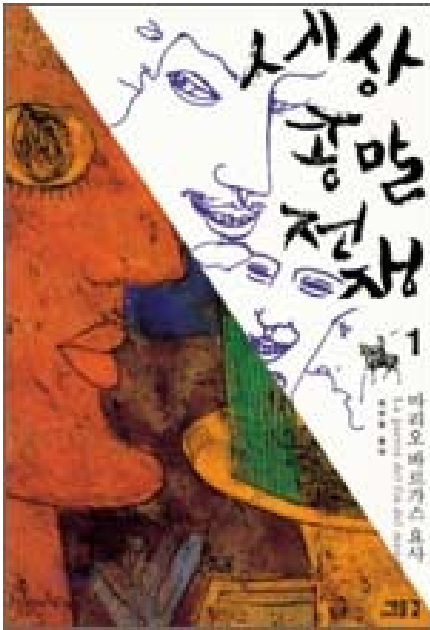


imaginario. Las cartas de batalla de Joanot Martorell, 1971)도 1970년대 바르가스 요사의 새로운 문학 경향에 참고할 만한 문학론이다. 바르가스 요사는 이 책에서 14세기 스페인의 기사도소설을 다루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를 신청하면서도, 목숨이 아까워 그 결투를 무한정 미루는 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사도 정신의 역설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 숭고한 문학/통속 문학, 용기/비겁, 명예/위선의 이분법을 문제시 삼는 이런 태도가 『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새엄마 찬양』이나 『리고베르토씨의 비밀노트』는 『나는 홀리아 아주머니와 결혼했다』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성 문제를 극한까지 다룬 작품들이다. 『새엄마 찬양』은 리고베르토와 결혼한 새엄마 루크레시아에게 노골적인 성욕을 표시하는 알폰소라는 어린아이의 이야기이다. 이야기에 접목된 신화와 서구 회화의 여러 모티브가 새엄마와 어린아이의 관계를 패륜 혹은 포르노로 바라보지 말고 성과 속, 순수함과 성욕, 선과 악의 경계에 대해 성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리고베르토씨의 비밀노트』는 이 작품의 후속편이다.

1970년대부터의 바르가스 요사의 행보 중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점은 이념에 대한 성찰이다. 좌와 우의 대립에 대한 회의 역시 지극히 포스트모던적 행보라 할 수 있고, 이념에 집착하는 군상들을 잔인할 정도로 조롱하는 점에서 위에 언급한 바르가스 요사의 변신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념 문제



를 다룰 때의 바르가스 요사는 1960년대만큼이나 진지하다. 이는 1971년 쿠바 문인 에베르토 파디아(Heberto Padilla)의 자아비판 사건 이래 점점 좌에서 우로 이념적 여정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 술한 비판을 받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시키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국내에 번역된 작품들 중에서는 『세상 종말 전쟁』이 이에 해당한다. 이 소설은 브라질 작가 에우클리지스 다 쿠냐의 『오지 사람들』(Os Sertões, 1902)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19세기 말 브라질 오지의 소외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귀의하고, 결국에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 중 하나인 카냐브라바 남작은 광적인 신도들과 근시안적인 공화주의자들을 전쟁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한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이념에 따라 이 반란을 왜곡 해석하는 무정부주의자와 이상주의자에게도 냉소를 보낸다. 이 카냐브라바 남작이야말로 바르가스 요사의 분신이고, 나머지 군상들은 그가 보기에 이념의 덧에 걸려 좌와 우의 극단적인 대립을 빚어낸 당대의 지식인과 민중이다.

번역된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최근 번역, 출간된 『염소의 축제』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32년 동안 철권통치를 휘두른 트루히요의 암살을 다룬 작품이다. ‘염소’는 각료들의 딸까지도 탐한 트루히요의 무분별한 성욕을 빚댄 별명이다. 『카테드랄 주점의 대화』에 이어 두 번째로 독재자를 전면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권력과 부패를 신랄하게 비판하던 1960년대의 청년

바르가스 요사의 모습, 결국 그를 노벨문학상의 영광에 이르게 한 바로 그 모습이 오랜만에 다시 살아난 작품이기도 하다.

바르가스 요사의 작품이 이렇게 많이 번역된 것은 분명 한국 독자들에게 행운이다. 그러나 상당수의 번역, 재번역이 21세기에 접어들어 뒤늦게 진행되면서 바르가스 요사의 대표작이자, “문학은 불꽃이다”라고 선언한 열혈남아로서의 면모가 녹아있는 1960년대의 대표작들은 너무 오래전 작품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서점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도시와 개들』, 『녹색의 집』, 『카테드랄 주점에서 대화』 등이 어서 빨리 번역 혹은 재번역되기를 바랄 뿐이다.

---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